‘잇몸投’로 반타작 KIA, 깨어난 방망이는 반갑다

타이거즈 전망대

대체 선발 투입 패배 ‘쓴맛’
지난주 3승3패…1위는 지켜
김도영 벌써 시즌 최다 홈런
분위기 탄 소크라테스 주목
키움·LG와 원정 6연전 앞둬

NC와 두 경기 차 1위인 KIA가 원정 6연전에 나선다. 윌 크로우를 선발로 내세워 23일부터 주중 키움을 상대하는 KIA는 이어 잠실로 가 LG와 주말 3연전을 치른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타이거즈가 원정 6연전에서 1위 수성에 나선다.

선두 질주 중인 KIA는 23일 고척으로 가 키움 히어로즈와의 두 번째 시리즈를 시작한다. 26일에는 잠실로 이동해 LG 트윈스와 주중 3연전을 갖는다.

KIA는 앞선 주말 NC 다이노스와의 대결을 끝으로 9개 구단과의 ‘기싸움’을 마무리했다. 초반 싸움에서 KIA는 17승 7패, 승률 0.708을 찍으며 가장 높은 곳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시험 무대’였던 지난 주에는 3승 3패의 성적표를 받았다.

KIA는 올 시즌 강팀으로 꼽히는 SSG 랜더스와 NC를 연달아 만나 경쟁력을 시험했다. 난적과의 경기인 데다 부상 여파도 있었다. 이의리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16일 SSG전, 21일 NC전에 대체선발이 투입됐다.

그리고 이 두 경기에서 KIA는 마운드가 흔들리면서 패배를 기록했다.

16일에는 9회말 2사에서 마무리 정해영이 최정에게 동점 홈런에 이어 한유섬에게 끝내기 투런을 맞으면서 8연속 세이브 행진을 마감하고, 패전투수가 됐다.

21일에는 KIA가 11개의 볼넷을 허용하는 등 마운드 싸움에서 밀리면서 올 시즌 가장 많은 15점을 내줬다.

아쉬운 패배들이 남았지만 KIA의 시원한 홈런이 팬들을 웃게 했다.

김도영은 지난주 6경기에서 20타수 9안타 0.450의 타율을 기록했다. 9개의 안타 중 4개는 담장을 넘어간 홈런이었다.

앞선 한화전 홈런 포함 16·17일까지 3경기 연속 홈런에 연타석 홈런도 장식했다. 21일에는 1회 첫 타석에서 김시훈의 직구를 공략해 중앙 담장을 넘기면서 시즌 8호포에 성공했다. 지난 시즌 7개의 홈런을 기록했던 김도영은 올 시즌 24경기 만에 자신의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새로 만들었다.

김선빈의 ‘깜짝’ 두 경기 연속 홈런도 나오는 등 KIA는 지난주 가장 많은 11개의 홈런포를 선보였다. 소크라테스의 ‘한방’도 반갑다. 올 시즌에도 초반 부진을 겪고 있는 소크라테스는 21일 솔로포를 쏘아올리는 등 지난주 2·3호포를 기록했다. 시원한 ‘한방’으로 분위기를 탄 소크라테스가 새로운 한 주 중심에서 힘을 더해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루’도 키워드가 될 한 주다.

KIA는 올 시즌 공격적인 주루로 상대를 공략하고 있다. 19일 NC와의 연장 승부 끝내기 장면에서도 KIA의 공격적인 주루가 있었다.

21일에도 일단 뛰는 전략으로 2개의 도루를 만들었지만, 2개의 도루 실패도 남았다.

여기에 도루 저지율이 0.167로 뚝 떨어진 게 아쉽다. 공격적으로 뛰면서 도루 성공률을 높이고, 상대의 기동력도 막아야 하는 숙제가 KIA에 주어졌다.

특히 주말에 만나는 LG는 올 시즌 42차례 베이스를 훔치는 데 성공하면서 팀 도루 1위에 올라있다. 2위 KIA의 33개보다 9개가 더 많다. 상대 주자를 막을 포수와 투수의 호흡이 중요하다.

윌 크로우가 스타트를 잘 끊어줘야 한다. 크로우는 23일 선발로 나서 키움 하영민과 맞대결에 나선다. 로테이션상으로는 28일 LG전까지 책임져야 한다.

이미 만났던 상대와의 재대결이다. 크로우는 3월 23일 시즌 개막전에서 키움을 상대했다. 지난 11일에는 LG전 선발로도 나섰다.

타자들 입장에서는 앞선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세밀하게 크로우를 공략할 수 있는 만큼 맞춤형 전략으로 타자를 상대하고, 포수와 호흡을 맞춰 주자도 묶어야 한다. /김여울 기자 wool@

LPGA ‘코다의 호수’에 빠지다

코다, 메이저 셰브론 챔피언십 우승 ‘5연승’…한국 유해란·임진희·김아림 ‘탑10’

넬리 코다(미국)가 22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우들랜즈의 더 클럽 칼턴우즈에서 열린 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 대회 셰브론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후 18번 홀 그린 주위 호수에 뛰어들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넬리 코다(미국)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최다 연승 타이기록인 5연승과 함께 메이저 대회 정상에 등극했다.

코다는 22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우들랜즈의 더 클럽 칼턴우즈(파72·6824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 대회 셰브론 챔피언십(총상금 790만 달러)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로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 합계 13언더파 275타를 기록한 코다는 2위 마야 스타르크(스웨덴)를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우승 상금 120만 달러(약 16억5000만원)를 받은 코다는 챔피언의 이 대회 전통인 18번 홀 그린 주위 호수에 뛰어드는 ‘입수 세리머니’를 하며 우승 기쁨을 만끽했다.

LPGA 투어 통산 13승을 달성한 코다는 메이저 대회에서는 2021년 6월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이후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코다는 또 올해 1월 드라이브온 챔피언십을 시작으로 3월 퍼힐스 박세리 챔피언십과 포드 챔피언십, 이달 초 T모바일 매치플레이에 이어 최근 출전한 5개 대회에서 연달아 우승했다.

5개 대회 연속 우승은 LPGA 투어 최다 연승 타이기록으로 1978년 낸시 로페즈(미국), 2005년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 이후 코르다가 통산 세 번째다.

이번 시즌 9개 대회에서 혼자 절반이 넘는 5승을 쓸어 담는 압도적인 기세다.

이날 경기는 전날 악천후로 인해 끝내지 못한 3라운드 잔여 홀부터 시작하면서 코다는 전날 3라운드 11번 홀까지 마쳐 이날 3라운드 7개 홀과 4라운드 18개 홀 등 25개 홀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한국 선수로는 지난해 LPGA 투어 신인왕 유해란이 최종 합계 9언더파 279타를 기록해 단독 5위에 올랐다.

임진희가 6언더파 282타로 단독 8위, 김아림은 5언더파 283타로 공동 9위를 각각 기록했다.

1언더파 287타를 기록한 신지애가 공동 23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방신실은 1오버파 289타로 공동 40위다.

한국 선수들은 이번 시즌 9개 대회에서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다.

LPGA 투어 시즌 개막 후 9개 대회에서 한국 선수 우승이 나오지 않은 것은 2014년 이후 10년 만이다.

2014년에는 박인비가 개막 후 14번째 대회인 매뉴라이프 파이낸셜 클래식에서 첫 승을 따냈다. /연합뉴스

‘제63회 전남도체육대회’ 뜨거운 경쟁 마무리

영광서 22개 시·군 7314명 참여

‘제63회 전남도체육대회’가 나흘간의 대장정을 마무리 했다.

영광에서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이번 대회에는 22개 시·군을 대표하는 선수단 7314여명이 참가해 총 24개 종목에서 뜨거운 경쟁을 펼쳤다.

지난 20일 영광스포티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폐회식은 선수단이 대회에서 펼친 활약을 모은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손점식 사무처장의 성적발표, 종합시상, 격려사 및 폐회사, 대회기 강하 및 패넌트기 이양, 폐회선언, 성화소화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사진〉

대회결과 순천시가 3만8675점으로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개최지인 영광이 3만5760점으로 준우승, 여수시가 3만5625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

최우수선수상은 수영 4관왕(평영 50m, 평영 100m, 계영 200m, 혼계영 200m)을 달성한 구태완(여수시)과 육상 100m와 200m에서 각각 10.70초, 25.21초로 대회 신기록을 세운 허정현(목포시)이 수상했다.

모범선수단상은 함평 선수단이 받았으며, 모범종목단체상은 전남배드민턴협회가 수상했다. 장려상은 나주, 강진, 무안 선수단이 수상했고, 화합상에는 장성 선수단, 질서상에는 고흥 선수단, 우정상에는 담양 선수단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체전 기간 봉사에 최선을 다한 영광스포츠클럽은 특별봉사상을 받았다.

영광은 작년대비 순위가 10단계 상승하면서 성취상 수상 지역중 1위 자리에 올랐다. 순위 9단계를 올린 곡성은 2위, 6단계를 올린 진도는 3위를 기록했다.

명창환 전남도부지사는 “각 시군의 명예를 걸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선수단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올 5월 전남에서 열리는 제53회 전국소년체전에도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남체육의 저력을 유감없이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여러분 덕분에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었다”며 내년 전남도체육대회를 기약했다.

한편, 내년 대회는 장성에서 개최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고흥서 전남 첫 태권도 실업팀 탄생

고흥에서 전남 최초 태권도 실업팀이 탄생했다.

22일 오후 2시 고흥팔영체육관에서 고흥군청 태권도팀 창단식이 열렸다. 〈사진〉

행사에는 공영민 고흥군수, 이재학 고흥군의회 의장, 이동섭 국기원장,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장, 장태수 한국실업태권도연맹 회장, 김대중 교육감,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김은수 고흥군체육회장, 전남태권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새롭게 창단된 고흥군청 태권도팀은 선수 7명, 감독 1명, 코치 1명으로 구성됐다.

전남태권도협회 김중옥 전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고, 광양고 태권도 지도자 출신인 양재훈 코치와 이경학(-87kg), 하선우(-58kg), 오인성(-68kg), 이의현(-63kg), 김근형(-80kg), 이우빈(-54kg), 김다혁(-74kg)으로 팀이 꾸려졌다.

이들 모두 전국 대회에서 다수 입상하며 우수한 실력을 검증받은 선수들이다. 2001년생인 하선우와 오인성은 지난해 ‘제9회 태권도원배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1위를, 1999년생 이경학은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